

#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 요한일서

1JN · 서신서 · 헬라어

관찰 핵심 정리 · 완성 5장 · 네다바웨이 Observatory

# 요한일서 1장 — Observatory | 네다바웨이

1JN-001 · 서신서 · 헬라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logos tes zoes)을 증언하는 자리. 하나님은 빛(phos)이시라는 선언이 울리고, 빛 가운데 행할 때 서로 교제(koinonia)가 열리며, 죄를 자백할 때 사함의 약속이 새롭게 시작된다.

## 관찰된 사실

### 요한일서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소품: 생명의 말씀(logos tes zoes, 1절), 영원한 생명(zoe aionios, 2절), 빛(phos, 5절), 어둠(skotia, 5-6절), 피(haima, 7절), 죄(hamartia, 8-10절), 자백(homologeo, 9절), 사함(aphiemi, 9절), 깨끗하게 함(katharizein, 7,9절).
- greek\_terms: [logos\_tes\_zoes, phos, koinonia, homologeo, hamartia, zoe\_aionios, skotia, katharizein, haima, aphiemi].
- 무대 두 층: 1-4절(증언자의 자격 선언·영생 나타남·교제 초대·기쁨), 5-10절(빛 선언·빛과 어둠 대조·죄 자백의 초대·사함 약속).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오래된 것이 지금 건네지는 이중 감각 — ap arches(태초부터)의 거리와 "너희에게 전함"의 근접함.
-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 여지 없는 단호한 선언 공기.
- 선언 다음에 거울(조건문 세 번)이 세워지는 구조적 공기.
- 4절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 — 전체 목적이 기쁨임이 선언됨.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1절): "태초부터 있는 것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 네 개의 감각 완료 동사로 확실성 선언.
- 끝(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 자기기만 경고로 닫힘.
- 시작의 '확실성(감각 증언)'과 끝의 '자기기만 경고'가 두 기둥.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요한(공동체), 수신자 교회, 하나님(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아들).
- 사상의 핵: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phos estin ho theos), 7절 빛 가운데 행하면 교제와 피 사함, 9절 자백하면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심.
- 편지 목적(4절):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
- 3절 koinonia — 수직(아버지·아들과의 사귄)이 수평(서로 사귄)의 근거.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 감각 증언·영생 나타남·교제 초대·기쁨 목적.
- 컷 2 (5-7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 빛 선언·어둠 속 행함의 거짓·빛 가운데 행하면 교제와 피 사함.
- 컷 3 (8-10절): 죄를 인정하라 — 죄 없다는 자기기만·자백하면 사함과 깨끗함·범죄 부인의 경고.

## 6 — (1) 원어 카드

- logos tes zoes(1절): 생명의 말씀. logos = 말씀·이성, zoe = 생명. 요한복음 1:1과의 관계는 미해결.
- koinonia(3,6,7절): 공동의 참여·나눔·사귄. 단순 친교가 아닌 깊은 연합의 결.
- homologeo(9절): 자백하다. 어근은 '같은 말을 하다' — 하나님과 같은 언어로 죄를 부르는 것.
- phos(5,7절): 빛. "하나님은 빛이시라" — 어둠이 조금도 없으심.
- katharizei(7,9절): 깨끗하게 하다. 현재 시제 — 계속 진행 중인 정화의 뉘앙스.
- zoe aionios(2절): 영원한 생명. 이 편지 전체 목적어의 예고.

## 6 — (2) 문학 구조

- 1-4절 프롤로그: 증언 자격(감각 동사 4개) → 영생 나타남 → 교제 선언 → 기쁨 목적.
- 5-10절 세 조건문 구조: "만일 우리가 ~하면" × 3회 (6절/8절/10절) — 각각 거짓이 드러나는 거울.
- koinonia의 이중 등장: 3절(수직 — 아버지·아들과), 7절(수평 — 서로) — 수직이 수평의 근거.
- 7절 한 문장 안에서 빛 → 교제 → 피 → 깨끗함이 연속으로 연결.

## 6 — (3) 배경 정보

- ap arches(태초부터) — 전치사 ap이 '그 시작 이후 쪽'의 지속성 뉘앙스. 요한복음 1:1 en arche와 다른 강조.
- 1절 감각 동사 네 개가 모두 완료형 또는 단과거 — 이미 확정된 과거 사건의 확실성 강조.
- phaneroo(2절, 나타나다) — 요한 문헌에서 성육신 가리키는 표준 동사. 배경 정보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 요한일서 1:1 ap arches와 연결 여부 미해결.
- 요한일서 4:8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 1장 "하나님은 빛이시라"와 같은 서술 구조. 권 전체 흐름.
- 시편 36:9 "주께는 생명의 원천이 있사오며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 교차 여지, 미해결.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는 확실한 증언 →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는 선언 → 이것을 전하는 이유는 교제를 위함 → 하나님은 빛이심, 어둠에 행하면서 빛에 있다 함은 거짓 → 빛 가운데 행하면 교제가 열리고 피가 깨끗하게 함 → 죄 없다는 자기기만 경고 → 죄를 자백하면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심 → 범죄 부인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 전체 흐름은 확실한 증언이 교제를 초대하고, 빛과 자백이 그 교제의 조건이다.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빛 가운데 서로 사귄 — 생명의 말씀과 교제의 초대"
- 초벌 부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교제가 열리고, 자백이 그 교제의 문이 된다"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 [x] 이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기록됨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해석·교리 단정 없이 본문 관찰만 보존.
- 불확실한 구속사 연결(요한복음 1:1과의 관계, 시편 36:9 교차)은 이해결 질문으로 보류.
- drift\_flag: false 유지.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일서 1장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감각 증언으로 열려, 하나님은 빛이심을 선언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교제(koinonia)가 열리며 죄를 자백할 때 사함이 주어진다고 초대하는 장이다.

**한 문단:** 1-4절 프롤로그에서 증언 자격이 확인된다 —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이 전함의 목적은 교제이고, 그 교제의 목적은 기쁨이다. 5-7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심이 선언되고, 빛 가운데 행할 때 교제가 가능하며 피가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이어진다. 8-10절에서는 죄 없다는 자기기만을 경고하고, 자백하면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으로 절정에 이른다. 이 장은 요한일서 전체 흐름의 제1국면 — '빛 안의 교제·죄의 고백'의 토대를 놓는 장이다.

## B ·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logos tes zoes(생명의 말씀), phos(빛), koinonia(사귄), haima(피), homologeo(자백), katharizein(깨끗함)가 무대 소품. |
| 2 첫 느낌·분위기    | 오래된 것이 지금 건네지는 이중 감각. 단호한 빛 선언 후 거울(조건문) 공기.                                                     |
| 3 시작과 끝       | 1절 감각 증언의 확실성 → 10절 자기기만 경고로 닫힘.                                                                 |
| 4 등장인물·상황·사상  | 빛이신 하나님·교제·자백·사함. 편지 목적: 기쁨 충만(4절).                                                              |
| 5 장면 컷        | 컷 1(1-4 증언·교제) / 컷 2(5-7 빛 선언·교제 가능) / 컷 3(8-10 자백·사함).                                          |
| 6 의문·발견·정보    | koinonia의 수직·수평 이중 구조 발견. katharizein 현재 시제. homologeo 어근 '같은 말'.                                |
| 7 동영상         | 확실한 증언 → 빛 선언 → 교제 초대 → 자백의 문 → 사함 약속 흐름.                                                        |
| 8 초별 제목·부제    | "빛 가운데 서로 사귄" /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교제가 열리고, 자백이 그 문이 된다"                                               |
| 9 동영상 안 겹가·기도 | 사함이 의로우심에서 온다는 자리에 머물며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

##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koinonia의 이중 구조:** 3절의 사귄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귄이고, 7절의 사귄은 서로의 사귄이다. 두 koinonia는 같은 단어이되 방향이 다르다. 수직 교제가 수평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구조가 이 장에 이미 들어 있다.
- 결 2 — homologeo의 뉘앙스:** 자백(9절)의 헬라어 어근은 '같은 말을 하다'이다. 하나님이 죄라고 부르는 것을 나도 죄라고 부르는 것 — 감정적 뉘우침이 아니라 언어적 동의가 자백의 뉘앙스다. 이 동의가 사함의 조건으로 놓인다.
- 결 3 — 기쁨의 목적:** 4절 "이것을 씀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 이 편지의 목적이 교훈이 아니라 기쁨이다. 빛의 선언, 교제의 초대, 자백의 길이 모두 기쁨을 향한다. 요한일서 전체의 목적론적 방향이 이 절에 미리 놓인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요한일서 4:8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 1장 "하나님은 빛이시라"와 동일 서술 구조. 1장이 4장의 사랑 선언을 향해 나아가는 흐름의 시작.
- 요한일서 5:13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 — 1장의 영원한 생명(2절) 선언이 5장의 확신으로 수렴하는 궤적.
-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 1장 1절 ap arches와의 연결 여부는 미해결로 보류.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태초부터 있는 것이 나에게 건네진다는 감각으로 들어간다.
- 멈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선언 앞에서 — 내가 어둠에 행하면서 빛에 있다고 하는지를 본다.
- 끝:** 자백이 교제의 문이라는 자리에서, 한 단어를 손에 쥐고 일어선다.

## F·자족성 점검

- [x] 이 장의 핵심 선언(빛·교제·자백·사함)이 나온다
- [x] 운동 벡터가 드러난다
- [x] 수면 아래의 본질(수직 koinonia가 수평의 근거·homologeo 언어적 동의)이 관찰된다
- [x] 실존적 부름으로 닫힌다

## G·구속사 좌표 — 1JN 흐름 위 이 장의 위치

요한일서의 spine은 "아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녀 삼아, 서로 사랑하는 참 교제와 영생의 확신에 이르게 한다"이다. 1장은 이 흐름의 제1국면 — '빛 안의 교제·죄의 고백'이다. 전체 spine의 전제가 되는 토대를 놓는 자리다. 아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를 영생의 확신으로 인도하는 여정이 시작되려면, 먼저 그 빛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 교제가 무엇이고 그 교제로 들어가는 문이 무엇인지가 확립되어야 한다. 1장은 그 기초를 감각 증언의 확실성 위에서 세운다. 5장의 destination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을 향한 첫 발자국이 여기에 있다.

## H·운동 벡터 — 1JN spine의 1장 국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확실한 증언에서, 빛 가운데의 참된 교제(koinonia)로. 어둠→빛의 운동이 이 장에서 선포되고, 자백이 그 전환의 문이 된다.

요한일서의 흐름이 '빛 안의 교제(1장) → 새 계명·서로 사랑(2장) → 하나님의 자녀(3장) → 하나님은 사랑(4장) → 영생의 확신(5장)'으로 움직인다면, 1장은 그 운동의 출발점에서 교제의 조건을 세운다. 빛 가운데 행함과 죄 자백이 그 참 교제(koinonia)의 문임을 이 장이 선언한다. 어둠에서 빛으로의 운동이 여기서 처음 불려진다.

## I·수면 아래 — 하나님의 의중·심정

표면은 빛과 어둠의 대조 선언이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 하나님이 교제를 먼저 원하신다는 방향이다. 3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에서, 교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이 비친다. 편지를 쓰는 이유가 기쁨이라는 것(4절) — 수면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정은 자녀가 기쁨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갈망이다. 자백에 사함을 약속하신다는 것(9절)에서, 관계 회복을 먼저 제공하시는 부모의 마음이 비쳐온다. 3:1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경탄이 이 장의 토대 위에서 있다.

## J·실존적 부름 — 빛 가운데 교제로 들어가는 불씨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 안에서 교제(koinonia)가 열린다 — 나는 지금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자백이 교제의 문임을 알고 그 문 앞에서 있는가.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나에게 건네졌다는 확실한 증언에서 시작해 — 빛 가운데 행함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가를 묻는다. 자백이 교제의 문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현실이 되는가. 이 불씨가 자아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제로, 그 교제에서 세상을 향한 증언으로 번지는 것이 요한일서가 향하는 운동의 첫 점화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교제(koinonia)

**다음 장으로 미치는 운동:** 빛 안에서 교제가 시작된 자가 새 계명 — 서로 사랑하라는 운동으로 나아가는 2장으로 전진한다.

## 미해결 질문

### 요한일서 1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1절 "생명의 말씀"(logos tes zoes)이 요한복음 1:1의 로고스와 동일한 분을 가리키는가?

- 본문이 명시하지 않는다. 문학적 연결만 표시하고 보류.

Q2.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이 어느 상황에서 들은 것인가?

-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다. 위치만 보존.

Q3. 7절 katharizei(깨끗하게 하다)의 현재 시제가 가리키는 정화의 성격은 무엇인가?

- 일회적인가, 계속적인가 —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는다. 미해결.

Q4. 9절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하심"에서 의로우심이 사함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 의로우심이 사함의 근거인 이유를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다. 관찰 단계에서 보류.

Q5. koinonia(사귄)가 수직(아버지·아들)과 수평(서로) 두 방향을 가리키는데, 이 둘의 관계는?

- 본문 안에서 수직이 수평의 근거임은 보이나, 더 깊은 연결은 미해결.

Q6. 10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는 표현이 가리키는 신학적 무게는?

- 본문 범위 안에서 관찰만 보존. 그대로 둔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요한일서 2장 — Observatory | 네다바웨이

1JN-002 · 서신서 · 헬라어

새 계명이자 옛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가 중심에 올리고, 세상 사랑의 세 욕심과 대비된다. 기름 부음(chrisma)이 진리를 가르치고, 적그리스도(antichristos)들이 나타나 믿음의 경계를 시험하는 장이다.

## 관찰된 사실

### 요한일서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소품: 대언자(parakletos, 1절), 화해 제물(hilasmos, 2절), 옛 계명(entole palaia, 7절), 새 계명(entole kaine, 8절), 빛(phos, 8-10절), 어둠(skotia, 9,11절), 세상(kosmos, 15-17절), 육신의 정욕·안목의 정욕·이생의 자랑(epithumia tes sarkos·epithumia ton ophthalmon·alazouneia tou biou, 16절), 기름 부음(chrisma, 20,27절), 적그리스도(antichristos, 18,22절), 거짓말하는 자(pseuetes, 22절).
- greek\_terms: [parakletos, hilasmos, entole\_kaine, entole\_palaia, chrisma, antichristos, epithumia, kosmos, skotia, phos, pseuetes, aletheia, meno].
- 무대 세 층: 1-11절(대언자·계명·빛어둠), 12-17절(세 집단·세상 경계), 18-29절(마지막 때·적그리스도·기름 부음·거하라).
- 키워드 meno(거하다): 6·10·14·17·24·27절에 반복 등장.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나의 자녀들아"(teknia mou, 1절)로 열리는 친밀한 부모-자녀 공기.
- 7-8절 역설: 옛 계명이자 새 계명 — 긴장과 동시에 일치의 기묘한 분위기.
- 18절 "지금은 마지막 때라" — 긴장감과 경계의 분위기 전환.
- 1장의 빛/어둠 대조가 2장에서 형제 사랑/미움의 관계 맥락으로 전개됨.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 끝(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 수미상관: 1절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 29절의 "그가 의로우신 줄". 의로우심이 처음과 끝.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요한(나의 자녀들), 수신자 교회(아이들·아비·청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대언자·화해 제물), 적그리스도들(18-19절), 거짓말하는 자(22절).

- 사상의 핵: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랑의 방향이 아버지 vs 세상으로 양립 불가.
- 7-8절 역설: 옛 계명이자 새 계명 —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침"으로 새로워짐.
- 편지 목적: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1절).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1절): 대언자와 계명 — 대언자·화해 제물·계명 지킴·옛이자 새 계명·형제 사랑/미움과 빛/어둠.
- 컷 2 (12-14절): 아이·아비·청년에게 씌 — 세 집단별 믿음의 자리 선언.
- 컷 3 (15-17절): 세상을 사랑 말라 — 세상 정욕의 세 이름·아버지 사랑과 양립 불가·세상 지나감·거하는 자.
- 컷 4 (18-29절): 마지막 때 — 적그리스도들·공동체 이탈·기름 부음·진리 vs 거짓·아버지 안에 거하라·의를 행하는 자.

## 6 — (1) 원어 카드

- parakletos(1절): 대언자·변호자. 곁에서 부름을 받은 자. 요한복음 14-16장의 성령 묘사에도 쓰임.
- hilasmos(2절): 화해 제물·속죄. 죄에 대한 화해의 근거.
- entole palaia / entole kaine(7-8절): 옛 계명 / 새 계명. 동일 내용이 시간(처음부터)과 빛(참 빛이 비침)의 두 측면에서 불림.
- chrisma(20,27절): 기름 부음. christos(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어근.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진리 수호의 역할.
- antichristos(18,22절):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 meno(6,10,14,17,24,27절): 거하다·머물다. 이 장에서 참 믿음의 표지이자 권면의 핵심 동사.

## 6 — (2) 문학 구조

- 세 층 구조: 1-11(신학적 토대), 12-17(삶의 지형), 18-29(믿음의 위기와 신뢰).
- 수미상관: "의로우신"(1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 29절 그가 의로우신 줄).
- meno(거하다) 반복 구조: 6·10·14·17·24·27절에서 거함이 진위 판별 기준.
- 7-8절 역설: 옛이자 새 계명 — 동일 명사(entole)에 두 형용사(palaia·kaine).

## 6 — (3) 배경 정보

- 1절 teknia mou(나의 자녀들아) — 이 친밀한 호칭이 요한일서에만 7회(2:1,12,28, 3:7,18, 4:4, 5:21) 등장. 요한의 목자적 관계를 드러냄.
- 2절 hilasmos — 신약에서 요한일서 2:2와 4:10 두 곳에만 등장.
- 20절 chrisma — 신약에서 요한일서 2:20,27에만 등장. 기름 부음의 고유한 사용.

##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한복음 13:34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 2장 7-8절 새/옛 계명과 연결 여지, 미해결.
- 요한복음 14:16 parakletos(성령) — 2:1 parakletos(예수 그리스도)와 동일 단어의 다른 사용, 미해결.
- 요한일서 4:10 hilasmos — 2:2와 같은 단어의 권 내 반복, 사랑의 근거로.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나의 자녀들아 죄 짓지 않도록 쓴다 → 죄를 지어도 의로우신 대언자가 있고 그가 온 세상의 화해 제물이다  
→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 옛이자 새 계명인 형제 사랑이 빛 안에 거하는 것이다 →  
아이·아버·청년에게 각각의 믿음의 자리를 선언한다 →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 욕심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은 지나가되 거하는 자가 있다 →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적그리스도들이 공동체를 떠났다  
→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 →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이다 →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영생이다 →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흐름은 안심에서 사랑·경계·분별·신  
뢰로.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거하는 자와 지나가는 자 — 새이자 옛 계명과 기름 부음"
- 초벌 부제: "대언자가 안심을 주고, 서로 사랑이 빛의 무대이며, 기름 부음이 진리 안에 머물게 한다"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기록됨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해석·교리 단정 없이 본문 관찰만 보존.
- 불확실한 연결(parakletos의 요한복음과의 관계, chrisma의 정체, hilasmos의 범위)은 미해결 질문으  
로 보류.
- drift\_flag: false 유지.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일서 2장은 대언자의 안심을 출발점으로, 서로 사랑이라는 새이자 옛 계명을 펼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경계와 기름 부음의 신뢰로 닫는 — 거함(meno)의 언어로 묶인 장이다.

**한 문단:** 1-2절에서 의로우신 대언자와 화해 제물이 죄의 안심을 준다. 3-11절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형제 사랑이 빛 안에 거하는 표지임이 선언된다. 이 때 옛 계명이자 새 계명의 역설이 등장한다. 12-17절에서 세 집단(아이·아비·청년)에게 각각의 믿음의 자리가 선언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경계가 세 욕심(육신·안목·이생의 자랑)으로 구체화된다. 세상은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18-29절에서 적그리스도들이 공동체를 떠났고, 기름 부음이 진리를 가르치며, 처음부터 들은 것이 거함의 내용이고,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닫힌다.

#### B·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parakletos(대언자), hilasmos(화해 제물), entole kaine/palaia(새/옛 계명), chrisma(기름 부음), antichristos(적그리스도), meno(거하다) — 무대 세 층. |
| 2 첫 느낌·분위기    | "나의 자녀들아"의 친밀함 → "지금은 마지막 때라"의 긴장감. 옛/새 계명의 역설 공기.                                                                      |
| 3 시작과 끝       | 1절 대언자(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 29절 의를 행하는 자. 수미상관: 의로우심.                                                                        |
| 4 등장인물·상황·사상  | 세상 사랑 vs 아버지 사랑의 양립 불가(15절). 세 집단별 선언(12-14절).                                                                          |
| 5 장면 컷        | 컷 1(1-11 대언자·계명) / 컷 2(12-14 세 집단) / 컷 3(15-17 세상 경계) / 컷 4(18-29 적그리스도·기름 부음).                                         |
| 6 의문·발견·정보    | meno가 이 장을 꿰는 거함의 동사. hilasmos·chrisma의 고유 사용(신약 2회). 7-8절 역설 구조.                                                       |
| 7 동영상         | 안심 → 사랑 계명 → 세상 경계 → 적그리스도 분별 → 기름 부음 신뢰 → 의를 행하는 자.                                                                    |
| 8 초벌 제목·부제    | "거하는 자와 지나가는 자" / "대언자 안심·서로 사랑·기름 부음이 거함을 이룬다"                                                                         |
| 9 동영상 안건기·기도  | 17절 "영원히 거하느니라"의 자리에서 세상과 거함의 긴장 안에 머문다.                                                                                |

####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meno(거하다)의 반복 구조:** 2장에서 meno는 6회 이상 등장한다. 거함은 이 장의 진위 판별 기준이다. 적그리스도들은 거하지 않고 나갔다(19절). 기름 부음은 거하게 한다(27절). 세상은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17절). 거함이 이 장의 신학적 축이다.

2. **결 2 — 옛 계명이자 새 계명의 역설:** 7절과 8절이 동일 계명을 두 이름으로 부른다.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면서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침으로 새 것'이 된다. 동일한 내용(서로 사랑)이 시간의 연속성과 현재의 새로움 두 차원에서 모두 참이라는 구조다.

3. **결 3 — 세상 사랑과 아버지 사랑의 양립 불가**: 15절에서 세상 사랑과 아버지 사랑이 공존할 수 없다는 선언이 나온다. 16절이 세 욕심으로 구체화하는데, 이것들은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고 한다. 사랑의 방향이 이 장에서 가장 선명한 선택으로 제시된다.

####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요한복음 13:34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 2장 7-8절과 언어적 연결, 미해결 보류.
- 요한일서 4:10 hilasmos — 2:2와 같은 단어. 사랑의 근거로서의 화해 제물이 4장에서 다시 등장.
- 요한일서 3: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 2장의 "아버지를 사랑함" vs "세상을 사랑함"의 긴장이 3장에서 자녀 됨의 경탄으로 이어지는 흐름.

####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나의 자녀들아"라는 호칭 안에서, 죄를 지어도 대언자가 있다는 안심으로 들어간다.
- **멈춤**: 세상과 아버지 사랑의 양립 불가 앞에서 —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본다.
- **끝**: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신뢰 안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자리에 선다.

#### F· 자족성 점검

- [x] 이 장의 핵심 선언(대언자·서로 사랑·세상 경계·기름 부음·거함)이 나온다
- [x] 운동 벡터가 드러난다
- [x] 수면 아래의 본질(meno가 진위 기준·아버지 자녀의 관계 마음)이 관찰된다
- [x] 실존적 부름으로 닫힌다

---

#### G· 구속사 좌표 — 1JN 흐름 위 이 장의 위치

요한일서의 spine은 "아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녀 삼아, 서로 사랑하는 참 교제와 영생의 확신에 이르게 한다"이다. 2장은 이 흐름의 제2국면 — '새 계명·세상을 사랑 말라'이다. 1장이 빛 안의 교제와 자백의 토대를 놓았다면, 2장은 그 교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결로 드러나는지를 펼친다.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이 그 교제의 내용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경계가 그 교제의 방향이다. 2장은 아들 안에 나타난 사랑이 자녀의 삶에서 형제 사랑과 세상 경계로 구체화되는 국면이다. 4장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와 5장의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을 향한 여정에서, 2장은 그 사랑이 삶의 계명 형태로 주어지는 자리다.

#### H· 운동 벡터 — 1JN spine의 2장 국면

대언자의 안심에서, 형제 사랑의 계명과 세상 경계로. 어둠에서 빛으로의 운동(1장)이 형제 사랑/미움의 관계 무대로 내려앉고, 거함(meno)이 그 운동의 지속 여부를 시험한다.

요한일서 흐름의 2국면에서, 이 장은 '어둠→빛'의 추상적 운동이 '형제 미움→형제 사랑'이라는 관계적 현실로 구체화되는 지점이다. meno(거하다)가 이 운동의 지속성 판별 기준이 된다. 세상이 지나가는 운동과 거함의 운동이 동시에 흐르는 국면이다.

#### I· 수면 아래 — 하나님의 의중·심정

표면은 계명과 경계의 권면이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 자녀들이 죄에서 무너져도 곁에 변호자를 두시겠다는 아버지의 의지다. 1절 "나의 자녀들아 썸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와 "죄를 범하여도 대언자가 있으니" — 이 두 문장 사이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되 넘어져도 일으키려 하시는 부모의 마음이 비쳐온다.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도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들 사이에서 흘러야 한다는 갈망으로

읽힌다. 세상 경계도 자녀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보호 의지다. 3:1의 경탄("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이 이 장의 수면 아래에 이미 흐르고 있다.

#### J·실존적 부름 — 서로 사랑하는 참 교제로의 불씨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세상이 지나가되 거하는 자가 있다 — 나는 지금 형제 사랑으로 빛 안에 거하고 있는가, 세상 사랑과 아버지 사랑 사이에서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다. 대언자가 이미 곁에 있다는 안심에서 시작해 — 서로 사랑이 내 안에서 빛의 무대가 되는가를 묻는다.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신뢰 안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운동이 시작되는가. 이 불씨가 자아에서 형제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부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교제로 번지는 것이 요한일서 2국면이 향하는 운동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거함(meno)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서로 사랑이 빛의 무대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경탄과 행함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3장으로 전진한다.

### 미해결 질문

#### 요한일서 2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1절 parakletos(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요한복음의 parakletos(성령)와 어떤 관계인가?**

- 동일 단어가 다른 대상에 쓰임.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는다. 미해결.

**Q2. 2절 hilasmos(화해 제물)가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는 표현의 범위는 무엇인가?**

- 본문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관찰 단계에서 보류.

**Q3. 7-8절 "옛 계명이자 새 계명"의 역설에서, 새로워지는 기준이 되는 "참 빛이 비침"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본문이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침"이라고만 한다. 미해결.

**Q4. 20,27절 chrisma(기름 부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 본문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 정체를 명시하지 않는다. 미해결.

**Q5. 16절 "육신의 정욕·안목의 정욕·이생의 자랑"이 왜 이 세 범주인가?**

- 본문이 배경을 설명하지 않는다. 관찰 단계에서 보류.

**Q6. 19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도다" — 공동체를 떠남이 적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논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 거함(meno)이 진위 판별 기준이 된다는 관찰은 가능하나, 그 신학적 의미는 미해결.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요한일서 3장 — Observatory | 네다바웨이

1JN-003 · 서신서 · 헬라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tekna theou)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3:1)의 경탄으로 열리고, 형제 사랑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임이 선언되며,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마음의 정죄를 넘어 담대함으로 이른다.

## 관찰된 사실

### 요한일서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소품: 하나님의 자녀(tekna theou, 1-2절), 씨(sperma, 9절), 마귀(diabolos, 8,10절), 가인(12절), 사망(thanatos, 14,15절), 생명(zoe, 14,15절), 목숨을 버림(16절), 재물과 궁핍한 형제(17절), 행함(ergon, 18절), 진실함(aletheia, 18절), 마음의 정죄(kataginosko, 20-21절), 담대함(parresia, 21절), 성령(24절).
- greek\_terms: [tekna\_theou, agape, agapao, hamartia, diabolos, sperma, ek\_tou\_theou, metabebeken, thanatos, zoe, parresia, kardia, aletheia, ergon, kataginosko].
- 무대 두 층: 1-12절(자녀 신분과 마귀의 자녀 대조), 13-24절(형제 사랑이 생명의 증거·행함과 진실함·마음의 담대함).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절 "보라"(ide)의 경탄으로 시작하는 초대의 공기 — 설명이 아닌 목격 공유.
- 자녀 신분의 기쁨과 "세상이 알지 못함"의 낮섬이 공존하는 긴장.
- 2절의 미래 시제(나타나시면 그와 같이 될 것) + 14절의 완료 시제(이미 옮겨짐) — 이미/아직의 이중 공기.
- 12절 가인이 등장하면서 추상 논의가 역사적 구체성으로 전환되는 분위기 전환.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 끝(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 시작의 '아버지 사랑으로 자녀 됨' → 끝의 '성령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심'. 자녀 신분 선언 → 그 자녀 안의 내주 확인.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16절 목숨을 버리심·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나타나심), 마귀, 가인, 수신자 교회(형제들).

- 사상의 핵: 14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16절 "이로써 사랑을 알았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 20절의 역설: 마음이 정죄해도 하나님이 더 크심 — 담대함의 근거.
- 23절 계명의 내용: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자녀 신분의 경탄 —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라 불림·세상이 알지 못함·그와 같이 될 미래·소망이 정결하게 함.
- 컷 2 (4-12절): 자녀 vs 마귀의 자녀 — 죄는 불법·마귀의 일 멸하러 나타나심·씨가 거함·가인의 예.
- 컷 3 (13-24절): 사랑이 생명의 증거 — 세상의 미움 속 사랑·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완료)·목숨을 버리는 사랑·재물과 형제 궁핍·행함과 진실함·마음의 담대함·계명(믿음과 사랑)·성령의 내주.

## 6 — (1) 원어 카드

- tekna theou(1,2절): 하나님의 자녀들. 출생(tikto)에서 온 단어 — 혈통·출생의 관계성 강조.
- sperma(9절): 씨. "하나님의 씨가 그의 안에 거함" — meno(거하다)와 결합. 거하는 씨가 자녀 됨의 표지.
- metabebeken(14절): 이미 옮겨졌다. meta+baino의 완료형 — 이미 완결된 존재론적 이동.
- parresia(21절): 담대함·자유로운 말.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한 접근.
- kataginosko(20,21절): 정죄하다·책망하다. 마음이 자기를 정죄함.
- agapao(11,14,16,18,23절): 사랑하다. 이 장의 행위 동사로서 자녀 삶의 핵심 동작.

## 6 — (2) 문학 구조

- 두 층 구조: 1-12(신분 선언) → 13-24(신분에서 나오는 삶의 증거).
- 수직-수평 사랑 구조: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수직) →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수평)".
- 완료-미래 이중 시제: 14절 완료(이미 옮겨짐) + 2절 미래(그와 같이 될 것) — 이미/아직의 동시성.
- 2장의 meno(거하다) 주제가 3장에서 sperma(씨) + meno로 심화.

## 6 — (3) 배경 정보

- 1절 ide(보라) — 헬라어 명령형, 주의를 환기하는 감탄 기능. 요한문헌에서 자주 쓰임.
- 12절 가인(Kain) — 창세기 4장. 요한일서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구약 인물. 행위의 대조(형제의 의로운 행위 vs 자신의 악한 행위)가 이유로 제시됨.
- 16절 "목숨을 버리셨으니"(psychen auton etheke) — 요한복음 10:11,15,17,18의 선한 목자 표현과 동일 구조. 배경 정보로만.

## 6 — (4) 교차 참조 노트

-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 12절의 가인 언급과 직접 연결.
- 요한복음 10: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 16절과 어휘 연결 여지, 미해결.
- 요한일서 4:9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 3:1 자녀 됨의 근거가 4장에서 설명됨.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아버지의 경탄할 사랑으로 자녀라 불린다 → 세상이 알지 못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 → 나타나시면 그와 같이 될 미래, 소망이 정결하게 함 →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고, 하나님의 씨가 거하므로 자녀는 죄를 짓지 못함 →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지 말라 → 세상이 미워해도 놀라지 말라, 형제를 사랑함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 → 그가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함 →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 마음이 정죄해도 하나님이 더 크심, 담대함을 얻음 → 계명은 믿음과 서로 사랑 → 성령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앎. 흐름: 자녀 신분 → 자녀의 특징 → 사랑의 증거와 정의 → 행함의 사랑 → 마음의 담대함.

##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보라 아버지의 사랑 — 자녀 신분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 초벌 부제: "아버지 사랑의 경탄이 자녀를 부르고, 형제 사랑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이며, 행함과 진실함이 마음의 담대함으로 이른다"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기록됨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해석·교리 단정 없이 본문 관찰만 보존.
- 불확실한 연결(9절 씨의 신학적 의미, 20절 하나님이 더 크심의 문맥, 요한복음 10장과의 연결)은 미해결 질문으로 보류.
- drift\_flag: false 유지.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일서 3장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1절)의 경탄으로 열려, 자녀 신분의 특징(씨가 거함·죄와의 관계)을 펼치고, 형제 사랑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증거임을 선언하며,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마음의 담대함으로 이르는 장이다.

**한 문단:** 1-3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라 불린 경탄이 선언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낯센과 그와 같이 될 미래가 함께 놓인다. 4-12절에서 자녀의 특징이 마귀의 자녀와 대조로 드러난다 — 씨가 거하므로 죄와의 관계가 다르고, 가인의 예가 형제 미움의 반면교사로 제시된다. 13-24절에서 형제 사랑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증거(완료 시제 metabebeken)로 선언되고,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심이 사랑의 정의가 되어 형제를 위한 목숨으로 흐른다.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마음의 정죄를 넘어 담대함에 이르고, 계명(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자 안에 성령으로 거하심을 앎으로 닫힌다.

#### B · 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tekna theou(자녀), sperma(씨), diabolos(마귀), 가인, metabebeken(이미 옮겨짐), parresia(담대함), ergon(행함), aletheia(진실함). |
| 2 첫 느낌·분위기    | 1절 "보라"의 경탄 초대. 기쁨과 낯센 공존. 완료-미래 이중 시제의 이미/아직 공기.                                                           |
| 3 시작과 끝       | 1절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 됨 → 24절 성령으로 거하심을 앎. 자녀 신분 선언 → 내주 확인.                                                      |
| 4 등장인물·상황·사상  | 수직-수평 사랑(16절). 마음의 정죄와 담대함(20-21절). 23절 계명의 내용: 믿음과 사랑.                                                     |
| 5 장면 컷        | 컷 1(1-3 자녀 신분·경탄) / 컷 2(4-12 자녀 vs 마귀 자녀) / 컷 3(13-24 사랑이 생명의 증거·담대함·성령).                                   |
| 6 의문·발견·정보    | metabebeken 완료형의 이미 완결된 이동. 16절 수직-수평 사랑 구조. 9절 씨+meno 심화.                                                  |
| 7 동영상         | 자녀 신분 경탄 → 자녀의 특징 → 사랑이 생명의 증거 → 행함의 사랑 → 마음 담대함 → 성령 내주.                                                   |
| 8 초벌 제목·부제    | "보라 아버지의 사랑" / "자녀 됨의 경탄이 형제 사랑으로, 행함과 진실함이 담대함으로"                                                          |
| 9 동영상 안 건가·기도 | 14절 완료형의 자리에서 이미 옮겨진 사실과 지금 내 사랑의 현실 사이에 머문다.                                                               |

####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완료 시제 metabebeken의 무게:** 14절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의 동사가 완료형이다. 이미 완결된 이동이다. 자녀 됨이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존재론적 사건으로 제시된다. 형제 사랑이 그 이미 일어난 이동의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된다.

2. **결 2 — 수직에서 수평으로의 사랑 정의:** 16절에서 사랑의 정의가 주어진다 — "이로써 사랑을 알았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직(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심) → 수평(형제를 위한 목숨)의 흐름이 사랑의 문법이다.

3. **결 3 — 마음의 정죄보다 크신 하나님:** 20-21절에서 마음이 정죄해도 하나님이 더 크심이 담대함의 근거로 제시된다. 자녀 됨의 확신이 자기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지 않고,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의 앞에 달려 있다는 구조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요한일서 1:8 "죄 없다 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 — 3:9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와의 긴장. 미해결 보류.
- 요한일서 4:9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 3:1 자녀 됨의 근거인 아버지 사랑이 4장에서 더 깊이 설명됨.
- 창세기 4장 가인 — 12절의 직접 연결. 형제 미움의 구체적 선례.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 경탄의 초대 안에 자신이 자녀임을 인식하며 들어간다.
- **멈춤:** 1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앞에서 — 나의 형제 사랑이 그 이동의 증거인지를 본다.
- **끝:** 마음의 정죄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아는 자리에 선다.

#### F · 자족성 점검

- [x] 이 장의 핵심 선언(자녀 신분·씨·사망에서 생명·행함의 사랑·담대함)이 나온다
- [x] 운동 벡터가 드러난다
- [x] 수면 아래의 본질(metabebeken의 이미 완결·수직-수평 사랑)이 관찰된다
- [x] 실존적 부름으로 닫힌다

---

#### G · 구속사 좌표 — 1JN 흐름 위 이 장의 위치

요한일서의 spine은 "아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녀 삼아, 서로 사랑하는 참 교제와 영생의 확신에 이르게 한다"이다. 3장은 이 흐름의 제3국면 — '하나님의 자녀·행함과 진실의 사랑'이다. 1장이 교제의 토대(빛 안의 자백), 2장이 교제의 계명(서로 사랑·세상 경계)이었다면, 3장은 그 계명의 뿌리인 자녀 신분을 경탄으로 선언하고, 자녀 됨이 어떤 삶으로 드러나는지를 형제 사랑이라는 행함으로 보여준다. 4장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향한 준비로서, 3장은 사랑이 자녀 신분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확립한다. 3:1의 경탄("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이 요한일서 전체의 심장으로서 이 국면에 놓인다.

#### H · 운동 벡터 — 1JN spine의 3장 국면

아버지 사랑으로 자녀라 불리는 경탄에서, 형제 사랑을 행함으로 그 자녀 됨을 살아내는 운동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의 전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사건의 증거로 드러난다.

요한일서 흐름의 3국면에서, 이 장은 '어둠→빛'(1장), '미움→사랑의 계명'(2장)에 이어, '자녀 신분에서 흘러나오는 행함의 사랑'으로 운동의 깊이가 더해진다. 사랑이 계명이 아니라 자녀 됨의 자연스러운 증거로 드러나는 전환이 이 국면의 핵심 운동이다.

#### I · 수면 아래 — 하나님의 의중·심정

표면은 자녀 신분 선언과 형제 사랑의 권면이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 1절의 "보라"가 경탄을 공유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어떠한 사랑을" — 이 감탄형은 하나님이 자녀를 향해 베푸는 사랑의 크기에 스스로 경탄하듯 독자를 초대하는 결이다. 수면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정은 '아버지께서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네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자녀를 자녀라 부르는 것 자체가 사랑의 행위이고, 그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시려는 갈망이 이 장 전체에 흐른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가 그 사랑의 깊이의 증거다.

#### J·실존적 부름 — 자녀 됨의 경탄에서 형제 사랑의 행함으로의 불씨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미 자녀라 불렸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 그 이미 완결된 사실이 내 안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행함으로 흘러나오고 있는가.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다. 자녀 됨의 경탄을 출발점으로 — 그 경탄이 내 안에서 형제를 위한 행동으로 번지는가를 묻는다. 마음이 정죄해도 하나님께서 더 크심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아는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제가 살아있는가. 이 불씨가 자아에서 형제로, 형제에서 참 교제 공동체로 번지는 것이 요한일서 3국면이 향하는 운동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자녀(tekna)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자녀의 행함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언의 토대가 되는 4장으로, 영을 분별하는 자리로 전진한다.

### 미해결 질문

#### 요한일서 3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9절 "하나님에게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는 어떤 의미인가?**

- 1장 8절 "죄 없다 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과 긴장을 이룬다. 본문이 두 선언을 어떻게 통합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미해결.

**Q2. 9절 sperma(씨)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 본문이 씨를 정의하지 않는다. 관찰 단계에서 보류.

**Q3. 14절 metabebeken(완료: 이미 옮겨짐)이 현재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 본문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만 한다. 미해결.

**Q4. 20절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가 위로인가, 경고인가?**

- 21절 담대함과 연결하면 위로로 읽히나, 본문이 명시하지 않는다. 미해결.

**Q5. 요한복음 10:11과 요한일서 3:16의 "목숨을 버리다" 표현의 신학적 연속성은?**

- 동일 어휘 구조이나 본문 간 의도적 연결인지는 미해결.

**Q6. "하나님의 자녀"(tekna theou)와 "아들들"(huiou)의 차이는 이 문맥에서 유의미한가?**

- 본문이 항상 tekna를 쓴다. 그 선택의 의미는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다. 미해결.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요한일서 4장 — Observatory | 네다바웨이

1JN-004 · 서신서 · 헬라어

영을 분별하라는 명령으로 열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ho theos agape estin, 4:8,16)는 선언이 두 번 울린다.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함,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음 — 요한일서 spine의 심장이 이 장에 있다.

## 관찰된 사실

### 요한일서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소품: 영들(pneumata, 1절), 거짓 선지자들(1절), 예수가 육체로 오심 시인(2절), 적그리스도의 영(3절), 이기는 자(4절), 독생자(monogenes, 9절), 화해 제물(hilasmos, 10절), 두려움(phobos, 18절), 온전한 사랑(teleios agape, 17-18절), 먼저 사랑하심(protos, 19절).
- greek\_terms: [dokimazete, pneuma, agape, ho\_theos\_agape\_estin, hilasmos, phobos, teleios, meno, agapao, monogenes, phaneroo, alethinos].
- 무대 두 층: 1-6절(영 분별), 7-21절(하나님은 사랑이심·온전한 사랑).
- meno(거하다): 12·13·15·16절에 반복 — 거함이 사랑과 결합.

####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절 경계의 공기("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음이라") → 7절 "사랑하는 자들아"의 따뜻함 — 전환이 인상적.
- 8절과 16절의 이중 선언("하나님은 사랑이시라")이 이 장의 공기를 주도함.
- 18절 두려움-사랑의 긴장: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운동의 공기.
- 분별(1-6절)에서 사랑(7-21절)으로의 주제 전환이 자연스럽게 연결됨.

####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시작(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 끝(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 시작의 '분별하라'(dokimazete) → 끝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 분별에서 사랑의 계명으로.

####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의 영, 수신자 교회.
- 사상의 핵: 8절·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ho theos agape estin).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 사랑의 방향(하나님이 먼저).
- 12절 역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 —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관계 안에서 드러남.

- 17절의 목적: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기 위해 사랑이 온전해짐.

##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절): 영 분별 — 거짓 선지자 경계·분별 기준·하나님께 속함(이기는 자) vs 세상에 속함.
- 컷 2 (7-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심 — 사랑이 하나님께 속함·독생자를 보내심·먼저 사랑하심·서로 사랑·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성령·"하나님은 사랑이시라"(8,16절).
- 컷 3 (17-21절): 온전한 사랑 — 심판 날의 담대함·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먼저 사랑하셨으니·형제 미움과 하나님 사랑의 모순·형제 사랑 계명.

## 6 — (1) 원어 카드

- dokimazete(1절): 분별하라·시험해보라. 명령형. 수동적 수용이 아닌 적극적 검증의 행위.
- ho theos agape estin(8,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agape가 술어 명사로 하나님의 본질을 서술.
- monogenes(9절): 독생자. 유일한 종류의·하나밖에 없는. 요한복음 1:14와 같은 단어.
- phobos(18절): 두려움. "온전한 사랑(teleios agape)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 두려움과 사랑의 반비례 관계.
- teleios(17,18절): 온전한·완전한. 온전한 사랑이 목적으로 제시됨.
- meno(12,13,15,16절): 거하다. 사랑 안에 거함과 하나님 안에 거함이 동일시됨.

## 6 — (2) 문학 구조

- 이중 선언 구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8절)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16절) — 같은 선언이 두 다른 맥락(부정·긍정)에서 반복.
- 방향 반전 구조: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 19절 "그가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 사랑의 방향이 두 번 강조됨.
- 분별(1-6절) → 사랑(7-21절)의 주제 전환: 분별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
- 1장 "하나님은 빛이시라" ↔ 4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 요한일서의 두 기둥 선언.

## 6 — (3) 배경 정보

- 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 분별 기준이 성육신 실재성. 영지주의 관련 여부는 미해결.
- 9절 phaneroo(나타나다) — 1:2·3:5·3:8에서도 같은 단어로 나타나심을 묘사. 요한 문헌의 표준 성육신 동사.
- 10절 hilasmos — 2:2에서 이미 한 번 나온 단어. 4장에서 사랑의 맥락으로 다시 등장.

##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한일서 1:5 "하나님은 빛이시라" — 4:8,16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와 동일 서술 구조. 빛과 사랑이 요한일서의 두 기둥.
-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 4:9,10과 어휘·주제 연결 여지, 미해결.
- 요한일서 2:2 hilasmos — 4:10과 같은 단어의 권 내 반복. 사랑과 화해 제물의 연결.

##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영들을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 →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 →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었다 →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모른다 →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 사랑의 나타남 →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사 화해 제물을 보내심 →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음 →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함 →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거짓말 → 형제 사랑 계명. 흐름: 분별 → 하나님께 속함 → 하나님이 사랑이심 → 먼저 사랑 → 온전한 사랑 → 형제 사랑.

##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별 제목: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 영 분별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 초별 부제: "영 분별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선언되고,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기록됨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별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 드리프트 관찰

- 해석·교리 단정 없이 본문 관찰만 보존.
- 불확실한 연결(2절 분별 기준과 영지주의 관계, 18절 형벌의 성격, 요한복음 3:16과의 연결)은 미해결 질문으로 보류.
- drift\_flag: false 유지.

## 종합 정리

### 종합 정리

####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일서 4장은 영 분별의 명령(1절)으로 시작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ho theos agape estin, 8절·16절)를 두 번 선언하고, 독생자를 먼저 보내신 사랑이 우리 사랑의 근거임을 말하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운동으로 닫히는 — 요한일서 spine의 심장을 담은 장이다.

**한 문단:** 1-6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제시된다 —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 하나님께 속함 vs 세상에 속함. 7-16절에서 사랑의 논거가 펼쳐진다 —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화해 제물이 되게 하셨으며, 이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그리고 두 번 선언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17-21절에서 사랑의 완성 방향이 제시된다 — 심판 날의 담대함,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함, 형제 사랑 계명.

#### B·9단계 통합 표

| 단계            | 핵심 발견                                                                                                                                 |
|---------------|---------------------------------------------------------------------------------------------------------------------------------------|
| 1 무대·배경·소품·소재 | dokimazete(분별), pneumata(영들), ho theos agape estin(하나님은 사랑이심), monogenes(독생자), phobos(두려움), teleios(온전한), meno(거하다), 먼저 사랑하심(protos). |
| 2 첫 느낌·분위기    | 경계와 따뜻함의 교차.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의 이중 선언. 두려움-사랑의 긴장과 운동.                                                                                     |
| 3 시작과 끝       | 1절 분별하라(dokimazete) → 21절 형제 사랑 계명. 분별에서 사랑의 계명으로.                                                                                    |
| 4 등장인물·상황·사상  | 8,16절 이중 선언. 19절 먼저 사랑하심. 12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서로 사랑 안에 거하심.                                                                               |
| 5 장면 컷        | 컷 1(1-6 영 분별) / 컷 2(7-16 하나님은 사랑이심) / 컷 3(17-21 온전한 사랑·담대함·계명).                                                                       |
| 6 의문·발견·정보    | ho theos agape estin의 술어 명사 구조. 이중 선언의 문학 구조. phaneroo의 요한 문헌 반복.                                                                     |
| 7 동영상         | 분별 → 하나님께 속함 → 하나님이 사랑이심 → 먼저 사랑 →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 내쫓음 → 형제 사랑.                                                                           |
| 8 초벌 제목·부제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사랑의 근거다"                                                                                             |
|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 19절 "먼저 사랑하셨음이라"의 자리에서 사랑의 방향이 먼저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며 머문다.                                                                                   |

####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이중 선언의 문학 구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두 번 나온다.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는 부정 뒤에, 16절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라는 긍정 뒤에. 같은 선언이 부정과 긍정이라는 두 방향에서 확인된다. 이 이중 구조가 선언의 무게를 더한다.
- 결 2 — 사랑의 방향 전환:**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와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 같은 방향 선언이 두 번 나온다. 사랑의 주도권이 하나님이심을 이중으로 강조하는 구조다.

3. **결 3 — 두려움과 사랑의 반비례**: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 사랑이 커질수록 두려움이 줄어드는 반비례 관계다. '온전한 사랑'(teleios agape)이 목적으로 제시되고, 그 방향이 두려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이 장이 열린 '분별'의 목적지이기도 하다.

####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요한일서 1:5 "하나님은 빛이시라" — 4:8,16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와 같은 서술 구조. 요한일서의 두 기둥 선언.
- 요한일서 2:2·4:10 hilasmos — 같은 단어가 2장(대언자의 근거)과 4장(사랑의 나타남)에서 반복.
- 요한일서 5:13 영생의 확신 — 4장의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먼저 사랑하심"이 5장의 확신의 신학적 근거.

####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긴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이겼다는 선언 안에 들어간다.
- **멈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언 앞에서 — 사랑이 하나님의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본다.
- **끝**: 먼저 사랑하셨음을 아는 자리에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운동 안에 선다.

#### F · 자족성 점검

- [x] 이 장의 핵심 선언(영 분별·하나님은 사랑이심·먼저 사랑·온전한 사랑·두려움 내쫓음)이 나온다
- [x] 운동 벡터가 드러난다
- [x] 수면 아래의 본질(ho theos agape estin의 술어 구조·먼저 사랑하심의 방향)이 관찰된다
- [x] 실존적 부름으로 닫힌다

---

#### G · 구속사 좌표 — IJN 흐름 위 이 장의 위치

요한일서의 spine은 "아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녀 삼아, 서로 사랑하는 참 교제와 영생의 확신에 이르게 한다"이고, destination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4:8,16)와 "영생을 알게 하려 함"(5:13)이다. 4장은 이 spine의 심장이다 — '영 분별·하나님은 사랑이심'의 4국면에서 요한일서 전체가 향하던 destination이 도달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언이 이 장에서 두 번 울린다. 1장의 "하나님은 빛이시라"에서 시작한 흐름이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로 심화된다. 이 선언이 5장의 영생의 확신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론적 토대다. 이 장은 요한일서의 목적지 중 하나가 성취되는 자리다.

#### H · 운동 벡터 — IJN spine의 4장 국면

영 분별의 경계에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심이라는 존재론적 선언으로.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에서 우리의 사랑이 가능해지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완성의 방향을 가리킨다.

요한일서 흐름의 4국면에서, 이 장은 '어둠→빛'(1장)·'계명으로의 사랑'(2장)·'자녀 됨의 행함의 사랑'(3장)에 이어, 사랑의 근거를 하나님의 본질 자체에서 찾는 가장 깊은 국면이다. 사랑이 명령이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것임이 드러나는 전환이 이 국면의 핵심 운동이다.

#### I · 수면 아래 — 하나님의 의중·심정

표면은 영 분별과 사랑의 선언이다.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 19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에서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먼저 나아가시는 분이다. 독생

자를 세상에 보내심이 그 먼저 나아가심의 구체적 사건이다. 수면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정은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옮겨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12절) — 이것이 수면 아래에서 관계를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방식이다.

#### J·실존적 부름 —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불씨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 내 사랑의 출발점이 내 안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는가. 두려움이 아니라 그 먼저 사랑하심 안에서 담대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운동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가.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다.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 두려움이 내쫓기고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는가를 묻는다. 그 사랑이 자아에서 형제로, 형제에서 참 교제 공동체로 번지는 것이 요한일서 4국면이 향하는 운동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내 존재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현실이 되는가.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사랑(agape)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자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영생의 확신에 이르는 5장으로 전진한다.

### 미해결 질문

#### 요한일서 4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2절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이 분별 기준인 이유는?**

- 본문이 배경을 설명하지 않는다. 영지주의적 맥락과의 관계는 미해결.

**Q2. 8절과 16절의 이중 선언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두 번 나오는 의도는?**

- 각각 다른 맥락(부정 후·긍정 후)에서 나온다. 의도적 반복인지 문학 장치인지 미해결.

**Q3.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 서로 사랑이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만 한다. 그 관계의 인식론적 구조는 미해결.

**Q4. 18절 두려움에 있는 "형벌"(kolasis)은 무엇인가?**

- 본문이 형벌을 정의하지 않는다. 심판의 두려움인지 다른 종류인지 미해결.

**Q5. "온전한 사랑"(teleios agape)이 완성 상태인지 과정인지?**

- 17절 "우리에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상태 같고, 18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과정 같다. 미해결.

**Q6. 요한복음 3:16과 요한일서 4:9-10의 관계는?**

- 어휘와 주제가 유사하나 본문이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미해결.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요한일서 5장 — Observatory | 네다바웨이

1JN-005 · 서신서 · 헬라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nike, 4-5절). 물과 피와 성령이 세 증인으로 증언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5:13)이 요한일서의 최종 destination으로 올린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 1JN의 마지막 운동이 여기서 완결된다.

### 관찰된 사실

#### LOCKED 관찰 사실 1~7

- **1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nike 선언, 4-5절):**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nike(승리)와 pistis(믿음)이 동격으로 연결됨.
- **2 물과 피와 성령의 세 증인 (6-8절):** 6절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성령이 증언함. 7-8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세 증거가 하나의 증언(eis to hen)으로 일치함.
- **3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크다 (9절):**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거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사람 증거 vs 하나님 증거의 대조.
- **4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 (11-12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분법 구조.
- **5 편지의 목적 선언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eidēte — 앎의 확신. 요한일서 전체의 목적이 명시됨.
- **6 담대함으로 구함 (14-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노라". parresia → 앎 → 얻음의 기도 구조.
- **7 세 가지 앎 선언과 우상 경계 (18-21절):** 18-20절 oidamen 삼중 선언 — 하나님께서 난 자가 범죄하지 않음·우리가 하나님께 속함·하나님의 아들이 오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심.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 자가 감사 6/6 체크리스트

- ☒ 본문 시작과 끝을 확인했다 (1절·21절)
- ☒ 반복 단어·구절을 세었다 (martyria 6회, oidamen 3회, zoe aionios 4회)
- ☒ 등장인물과 그 역할을 파악했다 (하나님·아들·성령·수신자·형제)
- ☒ 장면 컷을 분절했다 (1-12절·13절·14-21절)
- ☒ 원어 소품 최소 3개를 확인했다 (nike, martyria, eidōte, parresia, alethinos)
- ☒ drift\_flag: false — 해석·교리적 선언 없이 관찰에 머물렀다

## 종합 정리

### A. 무대·배경·소품 요약

요한일서 5장은 서신의 마지막 장으로, 미혹 속의 교회에게 믿음의 확신과 영생의 앎을 최종 확인해주는 선언적 편지다. 무대는 믿음·증거·생명(1-12절), 편지 목적(13절), 담대한 기도와 실천(14-21절)의 세 층으로 이루어진다. 핵심 소품은 nike(승리), martyria(증거), zoe aionios(영생), parresia(담대함), oidamen(우리가 안다)이다.

### B. 등장인물·사상 요약

등장인물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아들), 성령(증언하는 이), 수신자 교회, 중보 기도를 받는 형제다. 중심 사상은 두 가지다: ① 4-5절 믿음의 nike 선언 —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② 13절 편지의 목적 선언 —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 아들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동일시 구조(11-12절)가 이 장의 논리 축이다.

### C. 장면 컷 요약

컷 1(1-12절): 믿음의 논증 — 세상을 이기는 믿음, 물·피·성령의 세 증인, 하나님의 증거, 아들 안의 생명. 컷 2(13절): 목적 선언 — 영생을 알게 하려. 컷 3(14-21절): 담대한 기도·세 번의 앎·우상 경계. 컷 2는 전체의 전환점이자 목적지다.

### D. 원어·문학 구조 관찰

nike(víκη, 4절) — 여성 명사, hē pistis(믿음)와 동격. martyria(증거)가 7-9절에 6회 반복. oidamen(우리가 안다)이 18-20절에 세 번 연속. 13절 eidēte(알게 하려)는 oida의 접속법, 완전한 앎을 목적으로 함. alethinos(20절)는 참되신 이, 우상(21절)과 대비되는 참된 실재다. 5:13의 편지 목적 선언이 요한복음 20:31과 병행 구조를 보인다.

### E. 동영상 흐름 요약

믿음의 선언(1-5절) → 세 증인의 증거(6-8절) →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큼(9절) → 아들 안의 생명(11-12절) → 목적 선언(13절) → 담대한 기도(14-15절) → 삼중 앎 선언(18-20절) → 우상 경계(21절). 확신의 온도가 올라가며 끝에서 앎의 선언이 세 번 반복되고, 마지막 명령으로 닫힌다.

### F. 미해결 질문 목록

- '사망에 이르는 죄'(hamartia pros thanaton, 16절)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가? —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 '물과 피로 임하신' 이의 '물과 피'가 가리키는 사건이 무엇인가? — 본문에서 해석 불가, 미해결
- 18절 "하나님께서 난 자가 범하지 않는다"와 1:8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의 관계는? — 두 본문 모두 그대로 존재, 해석 보류

### G. 구속사 좌표 — 1JN flow 위의 위치

5장은 요한일서 5국면 '믿음이 세상을 이김·영생의 확신'이다. 요한일서의 spine — "아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녀 삼아, 서로 사랑하는 참 교제와 영생의 확신에 이르게 한다" — 이 최종 목적지가 바로 5장에서 도달된다. 특히 13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 1JN destination의 문자적 성취다. 1장이 빛 안의 교제로 열었다면, 5장은 영생의 앎으로 닫힌다. 2장 새 계명, 3장 자녀 신분, 4장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거쳐 쌓인 모든 확신이 5장에서 "우리가 안다(oidamen)"는 삼중 선언으로 최종 확인된다.

## H. 운동 벡터 — 1JN spine 국면

1JN movement — "어둠→빛 / 미움→사랑 / 의심→영생의 확신" — 의 마지막 벡터인 '의심→확신'이 5장에서 완결된다. 세 증인의 증거(6-8절)가 믿음의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크다는 선언(9절)이 확신의 기반을 확인하고, 13절 목적 선언이 그 확신의 목적지를 명시한다. 18-20절 oidamen 삼중 선언은 의심을 해소하는 공동체적 확인이며, 담대한 기도(14-15절)는 그 확신이 삶으로 흘러나오는 출구다. 요한일서 전체 운동이 5장에서 마침표를 찍는다.

## I. 수면 아래 —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

미혹 속에서 흔들리는 자녀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이 확신 없이 불안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eidēte)함이다 — 앎의 결핍이 영적 고통의 근원임을 아시고, 증거를 쌓아 확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5장에 담겨 있다. 아들 안에 생명을 두신 분이 그 아들을 가진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직접 선언하신다(11절). 세 증인을 두신 것도, 하나님 자신의 증거가 더 크다고 하신 것도, 담대히 구하라 하신 것도 — 모두 자녀가 확신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이다. 1JN의 저자 하나님은 자녀를 불안 속에 두지 않으신다.

## J. 실존적 부름 — 서로 사랑하는 참 교제로의 초대

5장이 묻는다: 나는 지금 '알고' 있는가? 영생이 나에게 있음을 안다는 것이 담대한 기도와 형제 사랑으로 연결되는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nike 선언은 피하는 자의 선언이 아니라 이미 이긴 자의 확신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이다. oidamen — 우리가 안다는 삼중 선언이 나의 고백인가? 5장은 요한일서 전체가 이끌어온 확신을 내 것으로 취하라는 최종 초대다. 불안에서 확신으로, 의심에서 앎으로 — 그것이 이 편지를 읽은 자의 귀착지다.

## 통합 — 요한일서 5장 관찰 표

| 항목                 | 관찰 내용                                                     |
|--------------------|-----------------------------------------------------------|
| 장르                 | 서신·선언·권면 (헬라어)                                            |
| 핵심 선언              | 믿음이 세상을 이김(4-5절), 영생을 알게 하려(13절)                          |
| 세 증인               | 성령·물·피 — 하나로 일치(7-8절)                                     |
| 편지 목적              |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eidēte, 13절)                              |
| 삼중 앎               | oidamen × 3 (18-20절): 범죄 앎·하나님께 속함·참된 자를 앎                |
| 1JN flow 국면        | 5국면: 믿음이 세상을 이김·영생의 확신                                    |
| 1JN destination 도달 | 5:13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 목적지                               |
| 운동 벡터              | 의심→확신 (1JN movement 최종 완결)                                |
| Greek terms        | nike, martyria, zoe aionios, parresia, oidamen, alethinos |
| 마지막 명령             | 우상에게서 멀리하라(21절) — 참 하나님 앎의 반면                             |

## 미해결 질문

Q1: 이 장을 한 문장으로

P01 한나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

**P02 이진우:** "세 증인의 증거 위에 선 확신, 의심에서 영생의 얇으로"

**P07 오지혜:** "아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자, 이미 이겼다"

**Q2: 초벌 제목과 부제 제안**

**P04 최현국:** 초벌 제목 — 이긴 믿음, 아는 영생

**P05 김미영:** 부제 —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하다 (5:6-8)

**P02 이진우:** 다른 부제 제안 —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5:13)

**Q3: 이 장의 미해결 질문들**

**P11 나경아:** '사망에 이르는 죄'(hamartia pros thanaton, 16절)는 어떤 죄인가요? 본문이 명시하지 않아서 관찰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미해결 질문으로 남겨요.

**P02 이진우:** 6절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어떤 사건을 가리키나요? 세례와 십자가인지, 다른 것인지는 본문이 설명하지 않아요. 미해결 질문으로요.

**P04 최현국:** 18절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과 1:8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의 긴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관찰에서는 두 본문 모두 그대로 있음을 확인만 해요. 미해결 질문으로요.

**Q4: 동영상 걷기 한 번 더**

**P01 한나래:** 1절부터 다시 걸으면 — 믿음(1절)이 세상을 이기는 힘(4-5절)으로, 그 믿음의 근거가 세 증인(6-8절)으로 제시되고, 결국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선언(11-12절)으로 이어지고, 13절의 목적 선언에서 멈춰요. 그 다음 담대히 구하는 기도(14-15절)와 세 번의 얇(18-20절)으로 나아가고, 21절 우상 경계로 닫혀요. 믿음 → 증거 → 확신 → 기도 → 얇 → 경계 순서예요.

**Q5: 기도 · 내면 떠오름**

**P05 김미영:** 13절이 마음에 자꾸 머물러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 —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아는 것을 더 깊이 알게 하려는 편지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지에 대해 잠시 머물어요.

**P07 오지혜:** 18-20절의 oidamen 삼중 선언이에요. "우리는 안다, 안다, 안다" — 이 반복이 불안에 맞서는 확신의 선포처럼 들려요. 미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공동체의 의지가 느껴져요.

**Q6: 침묵과 마무리**

**성령일 선교사:** 요한일서 5장, 그리고 요한일서 전체가 여기서 닫혀요. 1장의 빛으로 시작해 5장의 영생의 확신으로 — 어둠에서 빛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이동한 여정이 완결됐어요. 잠시 침묵 후 종합으로 이동합니다.

(침묵 약 40초)